

2024
09
—
소그룹교재



먼저오심

하나님을 알기 이전 이미 우리 삶에 다가오셔서 역사하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만나주심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다듬으심

우리를 다듬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성결과 성화의 은혜)을 경험합니다.

들어쓰심

주님께 쓰임 받는 사람으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



새301장(통460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새304장(통4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은혜

여는 질문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었습니까?

본문 이해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이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바울의 간증과 목회에 대한 권면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지난 자신의 부르심과 사역을 감사하며, 디모데에게 끝까지 하나님 안에 온전히 신앙을 지킬 것을 당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스테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는 현장에서 스테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하늘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테반의 죽음을 차마 앉아서 보실 수 없어 서서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아 큰 소리를 질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 귀를 막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말로만 가득 차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은 소통이 없는 오만한 행동으로만 일관하게 됩니다.

사울은 스테반의 죽음의 현장에서 증인이었던 것도 모자라 기세가 등등하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려 다메섹까지 먼 길을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입고, 눈이 열리고, 귀가 뚫리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나만 보이던 세상에서 이웃이 보이고, 이웃의 아픔이 보이고, 이웃의 눈물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하나씩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하여 기꺼이 나의 시간과 물질을 감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믿음과 사랑과 함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해진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남은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고, 20여 년 간의 선교 여행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최고의 율법학자요, 바리새인이라고 자부하던 예전의 삶이 자신의 삶과 다른 사람의 삶을 갉아먹

는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처럼 허무한 인생이었는지 고백한 바울은 기꺼이 삶이 무너져 가는 이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믿음 안에 성장해야 할 이들을 위해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활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인생을 오래 참으심과 자비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인내와 공활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언젠가는 주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한 생명이 복음을 듣고 영접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영원하시며,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 바울은 디모데에게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권면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나아갈 것을 말합니다. 우리 역시 믿음의 파산과 사탄에게 지지 않기 위해 우리를 끊임없이 기도하며 공활을 기억하며, 은혜를 감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 속으로

-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실 때는 언제입니까? (12절)
- 우리가 믿음의 파산을 겪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19절)

삶 속으로

-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 믿음에 파산하지 않기 위해 나의 신앙생활에서 버려야 할 것이나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까?

암송 구절 | 디모데전서 1:14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라

자녀와 나눔

오늘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을 나눠봐요.

2

둘째 주 소그룹 모임 | 본문 디모데후서 3:1-17

말세에 말씀으로 사는 법



새176장(통163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새180장(통168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마지막 날에

여는 질문

내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본문 이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기록한 서신서로써 유언장과의 같은 책임입니다. 말세에 있을 어려움과 고난에 대해 경고하며, 디모데에게 그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마지막 때에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하며,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질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나 그는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가르침을 통해 위로와 힘을 얻으라고 강조합니다.

바울은 말세의 징조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② 돈을 사랑하며 ③ 자랑하며 ④ 교만하며 ⑤ 비방하며 ⑥ 부모를 거역하며 ⑦ 감사하지 아니하며 ⑧ 거룩하지 아니하며 ⑨ 무정하며 ⑩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⑪ 모함하며 ⑫ 절제하지 못하며 ⑬ 사나우며 ⑭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⑮ 배신하며 ⑯ 조급하며 ⑰ 자만하며 ⑱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⑲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라고, 19가지의 죄를 나열하며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짓는 죄들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말세라고 말하든, 종말이라고 말하든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오지 않은 시간 안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종말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한 켠에는 언젠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 내일 죽어도 될 준비는 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일의 일상이 올 것으로 살아가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일이 없을 수도 있다는 마음도 먹고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매일 19가지의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또 우리는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따른다는 경건을 지키려고 애쓰는 삶이 종말론적 삶일 수도 있습니다.

7절의 “안네와 압브레”는 아람어인데 그 뜻은 “유혹하는 자”, “반란을 일으키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

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뜻대로만 살려는 사람, 하나님의 공동체를 존중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고수하는 사람이 바로 안네요, 암브레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습니다. 악한 자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하고, 속이고, 더욱 악한 자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지 않기 위해, 악한 길에 서지 않기 위해 성경을 배우고, 말씀으로 확신을 얻어야 합니다. 성경은 능히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줍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사람이 썼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성경을 온전히 읽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말씀 속으로

- 말세에 사람들이 저지르는 죄가 무엇입니까? (2-5절)
-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자는 어떻습니까? (12절)

삶 속으로

- 나는 종말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 성경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이 당신의 삶에 유익함을 경험하고 사십니까?

암송 구절 | 디모데후서 3:16-17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녀와 나눔

성경을 함께 읽는 시간을 정해서 한 주 동안 실천하는 시간을 보내 봅시다..

3

셋째 주 소그룹 모임 | 본문 히브리서 1:1-14

고난을 이기신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새542장(통340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새279장(통337장) 인애하신 구세주여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여는 질문

요즘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문 이해

초대 교회 시기에는 수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박해는 주후 49년 클라우디우스의 박해가 처음 이고, 66년 네로의 박해가 두 번째, 90년대 도미티아누스의 박해가 세 번째입니다. 히브리서는 두 번째 박해 즈음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제국만 박해를 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개종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였고, 그리스도인 안에서도 끊임없이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다투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받아 구원받는 삶을 산다는 것은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현실에서는 더 큰 고난과 아픔이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과 영원한 안식보다는 죽음의 공포와 핍박과 고난이 더 컸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서는 그들의 역사 가운데 다양한 방법으로 예언자들을 세우셔서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예언이 성취되고, 율법이 완성되며, 하나님의 계시가 선포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처한 현실보다, 지금 감당하기 힘든 문제보다 더 크신 만유의 상속자이시며, 모든 세계를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의 정확한 형상입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곧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 후,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임을 명확히 합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기 위해 보내어진 영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에게는 “네 보좌, 하나님이며, 영원하고 영원하다”는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왕권은 영원하며, 그분은 공의와 의로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으며, 하늘들도 그분의 손으로 지으신 작품입니다. 이 모든 피조물은 변하고 쇠할지라도, 예수님은 동일하시며, 그분의 연대는 끝이 없습니다. 이는 우리가 영원히 변함없고 신실하신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한낱 선지자나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달을 가리킬 때 달을 보아야지 가리키는 손을 보면 안됩니다. 환난과 핍박 앞에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시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보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신앙인들은 우리가 처한 현실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한 걸음이 구원의 성취를 이루고 마침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 속으로

-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로 삼으시고, 그의 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천사보다 더 뛰어나게 하실 때 무엇을 부어주셨습니까? (8-9절)
- 천사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14절)

삶 속으로

- 내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 내가 살아가면서 자주 넘어지는 약함이 무엇입니까?

암송 구절 | 히브리서 1:7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자녀와 나눔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세 가지만 나눠봅시다.

순종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새456장(통509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나
새597장(통378장)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주 은혜임을

여는 질문

나는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듣는 편입니까, 아니면 내 말만 계속하는 편입니까?

본문 이해

히브리서 10:1-10은 구약의 제사와 예수님의 단번에 드리신 제사를 대조하면서,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가져다주었음을 강조합니다. 먼저, 1-4절은 구약의 율법과 제사가 완전하지 않음을 말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 그 실체는 아닙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제사들은 죄를 온전히 제거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죄의식을 계속 상기시킵니다. 이는 짐승의 피로는 죄를 제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5-7절은 예수님의 오심과 순종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셨고, 대신 예수님의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고, 이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그분의 순종과 헌신을 보여줍니다. 8-10절은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였음을 선언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의 모든 제사들을 대신하여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리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이는 더 이상 반복되는 제사가 필요 없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완전하고, 영원하며,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음을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무게에 짓눌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듯이, 우리도 그분을 본받아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온전한 순종으로 예언을 성취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고, 사랑을 완성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순종이 무엇인지 비로소 알게 됩니다. 순종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성을 가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수직적 순종이고,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오는 수평적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권위를 깨닫고 굴복이 아닌 순종 즉 자발적인 복종을 통해만 경험할 수 있는 완성된 율법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사회 그중에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율법으로 이루어진 배려의 규율을 배우고 존중하면서 헌신과 희생 그리고 순종이 얼마나 큰 사랑의 행위인지를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율법은 구속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은 완성입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를 구속하는 것은 굴종하게 만드는 것이지만,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순종하는 것은 나와 너를 위한 사랑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비로소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고, 이웃을 위해 기꺼이 순종할 때 우리는 더 큰 우리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말씀 속으로

- 구약의 제사들이 완전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1-2절)
- 예수님의 희생이 구약의 제사와 어떻게 다르며,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10절)

삶 속으로

-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관철시키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 전적인 순종이 아니더라도 교회 안에서 내가 존중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암송 구절 | 히브리서 10:10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녀와 나눔

내 자녀들이 가장 아끼는 것들이 무엇인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알고 있나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내 삶이 더 좋아졌던 경험들을 자녀들과 나누면 좋겠습니다.

낮출 때 높이시는 하나님



새449장(통377장) 예수 따라가며
새453장(통506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여는 질문

내 탓이라고 자책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까, 아니면 남 탓이라고 떠넘기는 경우가 더 많습니까?

본문 이해

야고보서 4:1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야고보는 분쟁과 다툼의 원인이 외부 환경이 아닌 우리 내면, 즉 우리 마음속의 정욕과 욕망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1절)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이기적인 욕망과 탐욕이 외부로 표출되어 다툼과 갈등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은 이러한 정욕과 욕망이 어떻게 우리의 행동과 관계를 망치는지 설명합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이루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만, 결국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갈등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에도 잘못된 동기로 구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3절)

4절은 강한 어조로 우리를 책망합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 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적인 욕망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적인 충성과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5절과 6절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언급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열렬한 사랑과 질투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더 큰 은혜를 주시며,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6절)

7절에서 10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

나님께 복종할지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우리 의지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또한, 우리의 손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진정한 회개와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죄인들이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8절)

10절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약속을 줍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십니다. 우리의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낮아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펴 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과 정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순종과 겸손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 속으로

-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7절)
-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낙심하거든 하나님의 앞에 낮추라 그리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는 구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10절)

삶 속으로

-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갑니까?
- 내 안에 있는 욕망과 탐욕을 제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암송 구절 | 야고보서 4:10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녀와 나눔

가족 구성원의 칭찬을 하나씩 이야기 해봅시다. 감사했던 일도 나누어 봅시다.